안녕하세요

에코브리지 2기 도담도담의 팀장 이다은 입니다.

먼저 약 4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던 에코프로 최형익 이사님, 금나래 대리님,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장우현 대리님, 그 외 고생해주신 직원분들과 에코브리지 2기 단원분들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

그리고 우리 도담도담 소연님, 은진님, 서현님께도 할 말이 아주 많은데요.. 제가 팀장을 하면서 저 스스로는 얻은게 정말 많지만, 더 잘 이끌어야 했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도 큰 거 같아요. 부족한 점 많은 팀장이었는데도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더 힘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은진님이 ‘노 다은 노 도담도담’이라고 해주셨을 때랑 소연님이 다은님이 팀장 안하셨으면 어쩔 뻔 했냐는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많이 감동 받았고 자신감도 확 올랐던 것 같아요.

그동안 했었던 활동을 떠올려 보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웃었던 기억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. 발대식 때 어색했던 건 잊고 어느새 한 번 얘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끊지 못했던 저희들.. 저는 활동 내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. 자주 못 봤던 게 아쉬웠고 그냥 집 가는 기차 놓치더라도 밥 한 번은 먹고 헤어질 걸.. 하는 생각도 들어요. 확실히 저희끼리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저희 팀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늘 생각합니다. 사는 곳은 조금 멀지만 앞으로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. 제가 청주랑 제천 아니면 대전이라도 꼭 놀러갈게요! 만나주세요..ㅎㅎ

마지막으로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구요, 이번 에코브리지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일도 하고 많이 배운 만큼 앞으로 하는 일들도 다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